

성서의 창조신앙과 생태 영성

박신배 (그리스도대학교 교수)

I. 들어가는 말

오늘날은 총체적인 생태적 위기의 시대이다. 기후의 변화로 인한 홍수와 지진, 가뭄과 태풍, 사막화 현상 등 지구의 재앙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생태학적 위기에 대해 인류는 지혜를 모아, 각 나라와 정부, 생태보존단체는 범지구적 차원에서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의 대응을 펼치고 있다. 심지어 동물들도 세계 각지에서 500억 마리가 학살되고 3000만 마리 유기견이 생기며 하루에 100개종이 멸종되고 있다고 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핵발전소는 완전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체르노빌 원전 대형사고에 이어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고취되었다. 원자력 발전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즉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바닷물의 온도 상승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지표면과 오존, 중독물질 배출, 산성비,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능 유출, 군수 산업 폐기물, 농약, 화학 합성 잔유물, 핵발전소 폭발 누출사고, 중금속 폐기물 등 심각한 자연 파괴 현상들이 가중되고 있고 그 결과 생태계의 혼란은 심화되고 있다.

과거 1980년대와 90년대의 예언적 현상으로서 생태 신학을 말하던 때에 비해, 현재 지구의 온난화, 기후변화, 생태파괴 현상은 처참할 만큼 심각한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개발도상국들의 개발과 발전이테올로기에 환경을 파괴되고 있고 개발과 정의에 도전을 받고 있는 세계는 심각한 인구 문제로 인한 인간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⁸¹⁾ 또한 우리나라는 건축토목경기 활성화로 인한, 4대강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인간 생태계 파괴는 심각하여 졌고, 그로인한 한반도 생태계 복원에 대한 철저한 신학적 반성을 하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성서가 말하는 창조신앙이 무엇이며, 창조질서의 차원에서 생태 신학을 다루고자 한다.⁸²⁾ 그리고 우리 삶의 생태 영성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며 창조질서 보존을 위하여, 또한 좋은 자연과 환경과 더불어 인간이 잘 살 수 있는 생태 영성 추구의 삶을 먼저 찾아보고, 성서에서 그 답이 있는지 성서본문을 중심으로 생태 신학을 연구하고자 한다.

II. 생태신학과 영성

81) 레네 파달라, 홍인석역, 『통전적 선교』, (서울: 나눔사, 1994), 165-67.

82) 유재원, 『창세기강해: 제 1장』, (서울: 대영사, 1987), 9-124.

최근에 지구 환경을 보존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생태 신학이 연구되고 있다. 맥페이그는 하나님의 몸이 이 지구라고 본다. 생태학적 여성신학자 맥페이그는 어머니로서의 하나님 모델을 생명 및 전 우주중심적 신학의 가능성의 근거로서 제시하며 또 그 빛에서 전 우주를 ‘하나님의 몸’이라는 메타포로 이해한다.⁸³⁾ 생태적 환경, 이 지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몸이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으로 하여금 우주를 돌보고 보호할 수 있게 한다. 이에 신구약성서에서 생태신학의 전제와 그 근거를 제공하는 본문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생태신학을 말하는 학자들은 맥페이그(하나님의 몸: 생태신학), 리프킨(생명권 정치학), 마티(하나님의 생태학), 류터(가이아와 하나님, 지구 치유의 생태여성신학), 머천트(자연의 죽음: 여성, 생태, 자연적 혁명), 폭스와 루퍼트 쉘드레이크(자연적 은총) 등이 있다.⁸⁴⁾ 이들은 지구의 생태계 위기를 고발하고 생태신학적, 생태여성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지구와 우주, 자연과 피조물의 관계를 말하고 창조보전의 차원에서 신학적 작업을 한다. 생태신학자들은 생태계의 위기에 대한 신학적 대안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다.

프란츠 알트는 생태적 위기를 언급하는 것으로서, 오늘 하루의 생태 일일뉴스를 다음과 같이 보도한다.

“당신이 이 글을 읽는 오늘 하루 동안 우리는, 100가지 종류의 동식물을 멸종시키고 200만 헥타르(약6천5십만 평)의 사막을 만들어내고 8600만 톤의 비옥한 땅을 침식시켜 파괴하고 1억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우리가 지난 한 세기 동안 파괴한 것은 그 이전 50세기에 걸쳐 파괴한 양보다 많다는 것이다.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세 가지 환경문제가 바로, 오존층 파괴, 온난화, 핵전쟁 등으로 지구는 자멸하고 있다. 지구의 극 핵겨울 현상이 그 문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제 인류의 생존은 세계인들의 현재의 정신과 영혼의 철저한 방향전환에 달려있다. 그 해결책을 제시로서 프란츠 알트(Franz Alt)는 해결책은 ‘생태적 예수’에게서 찾는다. 구원자 예수에게서 생태적 구원능력을 찾으려 하고 있다. 하나님의 좋은 창조 세계를 끝없이 신뢰한 예수를 ‘생태적 예수’라 부르며, 생태적 예수는 미래의 생태의식과 생태적 실천에 신뢰할 만한 나침반이 되어 줄 것이라 본다. 이 나침반을 잘 보고 이용하는 것이 <생태주의자 예수> 책의 내용이다.⁸⁵⁾ 예수의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모든 피조물에게도 해당한다. 모든 생명과의 이러한 동감은 생태적 예수의 가장 핵심적 메시지이며 기쁜 소식이다. 그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전혀 새로운 생산방식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생태적 영성을 기본으로 물, 공기, 흙을 위한 에너지문제, 생태적 교통정책, 생태적 수자원정책, 생태적 농경정책(축산 포함)과 생태적 일자리, 노동의 미래 등을 희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경재는 올겐 몰트만의 자연신학·창조신학을 번역한 김균진 교수의 <생태학의 위기와 신학>에서 맺는말의 요점을 소개한다. “첫째, 자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83) 이정배, 『신학의 생명화, 신학의 영성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108-109.

84) 이정배, 『신학의 생명화, 신학의 영성화』, 39-249.

85) 손은하, “오늘의 희망메시지: 프란츠 알트의 생태적 경제기적, 생태주의자 예수”, 『새하늘과 새땅』, (한국교회 환경연구소, 16호, 2009년), 50-51.

창조'로 보며 생태계에 대하여 '경외심'을 가질 것, 둘째, 자연의 정의는 자연 자신이 지닌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므로, 자연을 인간의 '환경'으로서가 아니라 '공세계(Mitwelt)' 혹은 '본향'으로 생각할 것, 셋째, 자연보호법과 생태환경보호법을 만들고, 자연에 인위적 개입하여 자연 질서 및 순환과정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일을 피할 것, 넷째, 인간의 기본가치관의 변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절제로서 소비나 소유 중심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고, 금욕적 문화를 창달할 것, 다섯째, 인간(아담)은 히브리어 땅(아다마)에서 파생했고, 인간이라는 라틴어 호모(Homo)는 땅(Humus)에서 파생한 단어인즉, 땅은 하나님의 것이요, 인간모두의 공동자신인즉 땅을 사고파는 부동산 투기나 개인소유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⁸⁶⁾

한편, 김경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국 교회에 자연 생태학적 성서해석의 과제와 종교와 과학의 만남 모델로서 상보적 대화모델, 생태학적 통일성과 유기체적 한 몸 형성을 위한 중추신경계 모델로의 전환, 정의와 가난한 자의 배려를 우선시 하는 '계약전통'과 성육신적이고 몸 영성을 강조하는 '성례전적 전통'을 동시에 보존함, 그리고 성경의 자연·생태적 성구에 대한 새로운 재해석 요구(창세기1-2장, 호세아2:18-21, 시편 90편, 104편, 139편, 로마서 8:18-23, 사도행전 17:24-29, 에베소서 4:6, 골로새서1:15-20), 십자가의 영성, 교역자 양성 과정의 신학 커리큘럼에 자연·생태 신학과목 필수과목으로 채택하여 이수하기, 자연 파괴의 성장발전 지양, 교회 선교적 사명 중 핵심과제, 3가지 핵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⁸⁷⁾

생명과 환경은 인간의 몸에서부터 시작하여 환경의 오염, 공해 등 환경파괴의 문제에 이르기 까지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시인 김지하는 이제 환경운동은 생명 운동으로 불려야 한다고 보며 세계관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오늘날 환경관과 자연관이 환경보호의 차원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생명의 정치화, 생명의 환경운동, 생명 운동을 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⁸⁸⁾ 시인은 1990년부터 이미 심각한 생태위기에 대하여 생명운동을 벌이지 않으면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과 그 사태를 고발하지 않으면 안되는 지경에 이르러 생명운동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Ⅲ. 구약성서의 창조신앙과 창조질서

성경이 말하는 창조 신앙은 무엇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세기 1:1). 이처럼 구약성경은 첫 구절에서, 한 처음(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다고 선언함으로써 창조세계를 말한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신앙을 기독교 신앙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인다. 기독교 신앙을 네 가지로 표현할 때 창조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의 신앙 등을 말한다.⁸⁹⁾ 다시 말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창조 신앙

86) 김경재, “기후붕괴와 신학적 응답: 지난 25년간 한국신학계의 자연·생태신학 탐구의 지형도와 오늘의 과제”, <기후붕괴와 신학적 응답: 2009년 생태신학 세미나>, (한국교회환경연구소, 이화여대 탈경제인문학연구단), 53-54.

87) 김경재, 윗글, 56쪽. 3가지 핵심 사업은 지구 및 한국의 신뢰할 수 있는 환경실태 보고자료의 정기적 발행, 신학적 성찰과 개선방향 제시를 하는 학술적 연구 및 대중화 사업,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과제발굴과 생활신앙지침서 제공(예: 생태계 관리, 건강과 먹거리 관리, 생활 속에서 열 에너지 관리, 자원 재활용관리, 국가예산 편성 및 집행에서 반 생태적 개발정책과 언론 홍보 감시등등)이 그것이다.

88) 김지하, “생명과 환경” 『생명』, (서울: 숲, 1993), 150-178.

은 이처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있어서 우주와 지구, 자연과 동물,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질서의 구성물이다.

창세기는 두 가지 창조 이야기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여준다. 첫째로 태초 창조이야기(창세기 1:1-2:4a)는 하늘이 중심이 된 천지 창조이야기를 보여주고, 둘째의 땅과 하늘의 창조 이야기는(창세기 2:4b)는 땅이 중심이 된 창조 이야기로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상이한 창조 이야기에서 말씀으로 창조된 7일간의 창조세계는 인간이 자연과 동물을 관리하고 지배하며 다스릴 것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세기1:28). 다른 한편으로, 인간 창조 후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돕는 배필을 만들고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의 이름을 지어 부르는 대로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이 정해졌다고 말한다(창세기2:8-19). 이 창조세계 안에는 질서가 있고 인간의 창조질서 보존의 명령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창조신앙의 근거가 되는 창세기 1-2장의 이야기와 인간의 기원론적 문제(Aetiology)에 대한 이해는 창세기 3-11장까지의 원역사에서 다루고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Tov) 창조세계”가 오늘날 창조질서의 파괴현상이 이뤄져서, 보기에 나쁜(Raa) 세계가 되었다. 생명과 죽음의 문제에서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불행을 당하기도 하였지만, 생태 보존의 사명을 망각하고 환경 파괴를 행함으로써 생명파괴의 결과를 가졌고 결국

무분별한 자연계발과 생태계 파괴, 지구 온난화 현상과 기후이상화 현상이 일어나고 핵발전소(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인류는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물론 온난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산화탄소 감소를 위한 국제간 협약과 녹색 정책, 원전 감소 정책을 실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음은 생태신학적 방향에서 본 구약의 창조질서에 대한 본문들과 생태 영성에 대한 연구와 그 방법을 찾아보자.

창조세계보도가 구약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 끝나는가. 원역사와 족장사의 시각에서 창조신학과 구원신학의 관점에서만 창세기 읽기작업이 끝나는가. 우리는 생태신학적 관점에서 구약성서 해석작업이 있어야 함을 알게 된다. 오늘날 기후임계점의 상황에서 새로운 신학작업의 필요한 때임을 구약학자들이 말하고 있다.⁹⁰⁾ 생물과 무생물의 거주지인 지구세계를 “하나님의 몸”이라는 은유로 이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⁹¹⁾ 우리 모두가 지구공동체의 생존을 착취하였고 억압하며 위협했음을 고백하고 지구공동체가 위협에 처했음을 시인하는 작업을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약성서를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본문을 이해하고자 한다.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는 금령(창2:17)이 오늘의 생태적 파괴를 도래하게 했다는, 즉 선악과 금령위반으로 죽음을 맛보게 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을 당한 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추방을 당해서 세운 에녹 성은, 적합한 생태환경에서 쫓겨난 인류의 성이 되었다(창세기 4:17). 그리고 대 홍수 사건을 초래 하는 상태까지 인류

89) 박신배,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과 학문』, (서울: 그리스도대학교 출판국, 2005), 21.

90) 우택주, “기후붕괴와 성서신학적 응답 1”, <기후붕괴와 신학적 응답: 2009년 생태신학 세미나>, (한국교회환경연구소, 이화여대 탈경제인문학연구원), 5-6.

91) 우택주, 같은 글, 6쪽, 제인용, 셸리 맥페이그, <기후변화와 신학의 재구성>, 김준우역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8), 21쪽.

의 죄악은 극에 달하게 되었다. 인간의 마음의 계획은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그 마음에 근심하시며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겠다고 결심하신 후 심판하신다(창6:5-8). 대 홍수 사건은 오늘날의 지구온난화를 맞는 인류의 미래를 보여준 과거의 한 우주적, 지구적 생태학적 사건이었다. 대홍수 사건이 이제는 불 화살, 유황불의 패망, 소돔 고모라의 멸망 사건으로 최후 종말의 날을 맞게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인류 문화와 타락한 도시문명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인간의 탐욕과 도시문명의 결과가 결국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와 신의 영역을 침범함으로 종말의 심판을 가져오게 한다는 메시지를 받게 된다. 자연친화적 삶을 떠난 도시 중심의 문명 사회의 불행한 결과는 오늘의 생태신학적 전망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생명의 신학인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문화로 빨리 전환해야 하며, 도시문명, 신을 떠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침범하는 것,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는 교만성은 멸망을 자초하는 일임을 보여준다. 족장사(12-50장)에서는 요셉의 지혜본문에서 풍년과 흉년의 사이클을 통한 생태 환경의 변화와 위기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미래에 다가올 자연 환경의 변화와 기후이상 현상, 생태계의 파괴 현상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대홍수와 바벨탑의 도시문명, 예언서에 나타난 사랑과 공의를 저버린 열방과 언약백성의 불의와 배신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과 지구 생태계 파괴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을 본다(신명기 28:47-68; 이사야 5:7).

욥기 38-41장은 생태적 성서신학적 본문으로 제공된다. 폭풍가운데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생태계의 파괴나 혼란으로 야기된 환경적 변화를 지시한다. 욥과 만나는 하나님은 폭풍가운데 고난받는 욥을 보면서 지구의 폭풍현상에서의 욥의 실존, 인류의 실존을 보고 계시며, 지구 공동체의 신음을 가만히 보시지 않고 생태계를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욥에 국한되지 않고 지구 공동체의 대표단수로 보이지만 인간과 지구 공동체 전반에게 나타나 이제는 귀로 듣기만 했던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존재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욥기42:5). 지구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류로써의 욥을, 새로운 욥의 인류를 보시는 주님은 폭풍속에서 나타나 다시 우리를 보고 생태적 구원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이 생태의 구속주를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동물의 관점에서 성서가 말하고 있는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그곳에 숨겨진 생태학적 메시지를 연구해보자. 하나님이 들짐승을 보내어 정계와 심판의 도구로 삼았다는 것(레위기21-22)과 동물을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로 나누어 이스라엘 백성이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음식을 구분하고 있는 것, 또 물고기와 조류, 파충류로 나누는 것이 그렇다(레위기11:1-47). 동물 제물은 소와 양, 염소와 비둘기(들비둘기, 집비둘기) 등이 사용되며(출29:38-41;레1:2-5:19), 이것들은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한 제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동물의 첫 세끼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 짐승의 말배는 바쳐야 했다(레위기27:26-27). 이처럼 구약에서 동물의 기능은 다양하다.

한편, 창조 질서에 나오는 인간과 동식물의 창조 순서(창세기1:11-31)와 아담이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관계(창세기2:19-20)를 통하여 인간이 자연과 동식물을 다스리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창세기1:20-23, 24-25), 이를 통해 성서적 세계관에서 인

간이 창조 질서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게 된다. 구약 성서의 인간과 동식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 세계가 질서있게 보존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축원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성서에서 동물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섭리 속에 존재하며, 인간과 더불어 함께하며, 인간의 관리속에 있는 동시에 인간을 깨우치는 존재로 나온다.

오늘 일부 식물과 동물의 종이 사라지는 때를 맞이하였다. 호세아의 생태적 파괴와 존폐 위기에 대한 예언이 현실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호세아3:3).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는 시대가 되어,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살육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기 때문에, 땅이 탄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구적, 우주적 대 위기가 봉착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시대에 이 땅과 동물의 탄식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것이 성서가 말하고 있는 현실이다.

육기의 배경인 지혜문학의 범주에서 동물에 대한 언급은 전체 육기의 맥락에서 볼 때 인간이 유능한 동물(하마와 악어)보다 못한 존재이며, 하물며 창조주보다는 얼마나 열등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규명하는 대목이다. 이는 하나님의 세계와 존재에 대한 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맥락에서 언급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육기의 동물(들나귀, 들소, 타조, 말)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차원에서 육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뛰어난 존재임을 알게 하며, 비록 동물들이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는 신묘막측하고 신비로운 존재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또한 창조질서 안에서 동물들을 운영하고 생태계를 보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생태계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동물을 같은 수준에서 보시며 관리하고 보존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동물을 확대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폭력자로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약성서에서 뱀이나 큰 용(리워야단)은 사탄이나 악의 세력으로 상징되는 경우도 있다. 홍해 바다를 가르느 모세, 하나님의 백성이 어둠의 세력을 무찌르는 것으로서 동물 리워야단과 뱀은 창조질서에서 혼란의 세력으로써 상징적 요소로서 묘사되고 있다.

한편 생태적 차원에서 인간과 더불어 자연보존의 차원으로서의 동물보호 이야기는 노아 홍수이야기에서 살필 수 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은 정결한 동물로 선택되어 인류의 구원과 더불어 인간과 공존하도록 선택된 동물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식물은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이는 식물은 커다란 홍수에서도 생존할 수 있으며 물이 빠진 이후에는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자연보호와 동물 보호의 차원에서 노아 방주의 이야기는 길가메쉬 서사시와 비교하여 살필 수 있다.

노아의 방주와 유사한 길가메쉬 서사시를 보면 차이가 있다. 창조의 순서도 동물들을 먼저 창조한 이후에 인간이 나중에 창조된 것과, 길가메쉬 서사시에는 사람이 먼저 창조되고 새와 동물이 창조된다. 노아의 방주에서는 구원의 대상이 된 암수 한 쌍을 실은 것에 비해 길가메쉬 서사시는 금 은 보화를 싣고 먹이던 생물들을 모두 태웠고 식구들과 친척들도 배에 태운다. 그리고 들짐승, 야생 동물들, 모든 기술자를 태운다. 또한 모든 씨받이 생물도 태운다.⁹²⁾ 배의 규모 역시 길가메쉬 서사시에는 그리 크지 않는 조그만 배이고, 노아의 방주는 거대한 항공모함과 같은 크기가 된다. 길가메쉬 서사시에는 자신들만 구원받기 위해 태우지 않고 친척들, 모든 기술자들, 동물들을 태우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노아의

92) 성서와 함께 편집부, 『보시니 참 좋았다』, (서울: 성서와 함께, 2000), 149-150.

구원은 인류를 보존하기 위한 방편으로 노아의 가족이 중심이 되었고, 동물들은 새로운 인류와 공존시키기 위하여 구원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노아 방주는 인류 구원의 큰 계획 속에서 많은 동물을 구원하였다는 사실을 통해 생태학적 위기 속에 새로운 인류구원의 프로젝트를 노아의 때보다 더 큰 규모로 인류의 구원 프로그램을 위해, 그리고 녹색 세상, 녹색 세계를 만들기 위한 새 방주 제작 작업을 해야 할 이유를 말한다.

IV. 신약성서의 창조질서

맥페이그는 하나님의 몸이 이 지구라고 본다. 생태학적 여성신학자 맥페이그는 어머니로서의 하나님 모델을 생명 및 전 우주중심적 신학의 가능성의 근거로서 제시하며 또 그 빛에서 전 우주를 ‘하나님의 몸’이라는 메타포로 이해한다.⁹³⁾ 생태적 환경, 이 지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몸이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으로 하여금 우주를 돌보고 보호할 수 있게 한다. 이에 신구약 성서에서 생태신학의 전제와 근거를 제공하는 본문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있어야 한다.

신약성서에서 보여주는 생태적 비전은 기후 이상화 현상이나, 기온 상승으로 지구의 재난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적 메시지임을 발견할 수 있다. 마태복음 16:2-3에서 하늘의 기상현상을 통해 날씨와 일기예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늘의 징조,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다고 마태복음은 말하고 있다. 오늘날 절망적인 환경재앙 앞에선 인류는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해야 하는 때가 되었다. 지구 온난화라는 시대의 징조를 보고 주님의 경고를 알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돌이켜야 하는 때가 되었다. 화석 연료와 핵발전소의 전기사용,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등 위기에 처한 지구 살리기 운동에 동참해야 할 때임을 보여준다.

“너희는 저녁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굿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16:2-3)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은 생태적 위기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제국에 대한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 18장 2-3절과 23-24절은, 바벨론의 멸망 원인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⁹⁴⁾ 여기에 언급된 바벨론은 당시 유럽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패권을 잡고 있던 로마제국을 암시하는 묵시 문학의 상징적 표현이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부정하던 실제적인 국가체제였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인간적 권리에 서부터 모든 생태적 환경까지도 철저하게 지배당하는 노예 국가로 몰락한다는 것이다(이사야39:6).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내며 고통 받는 세상을 구원하실 여호와 신앙을 유지한다. 요한 계시록이 작성된 시기에 로마제국은 바벨론 제국과 같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가였다. 로마도 바벨론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지배하는 나라들에게 대해

93) 이정배, 『신학의 생명화, 신학의 영성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108-109.

94) 김주용, “녹색경제의 삶” 『새 하늘과 새 땅』, (서울: 한국교회환경연구소, 2009), 89-90.

서는 인간의 권리에서부터 그 나라가 가진 모든 생태적 환경까지도 약탈하고 지배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계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세계를 파괴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패권주의 국가들의 운명이 바벨론과 같을 것을 말하고 있다.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바빌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 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등불 빛도 다시는 네 안에서 비치지 않을 것이요,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네 상인들이 땅의 세도가로 행세하고 모든 민족이 네 마술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고, 예언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와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이 도시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요한계시록18:2-3, 23-24).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이런 제국주의 국가와 세력이 멸망당하는 원인은 첫 번째로 땅의 왕들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즉 종교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이유로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사치로 인해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곧 불공평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멸망하였다고 본다(요한계시록 18:11). 경제적 불평등을 이용해 이익을 차지하던 상인들이 울며 슬피한다고 말하고, 패망의 상황은 순식간에 이뤄진다고 본다(계 18:19). 로마 제국은 멸망하지만 이에 반해 새하늘과 새땅이 도래하는 곳에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를 마시게 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하루 양식으로 배부르게 해줄 것이라고 말한다. 오늘날 생태적 위기에 놓인 지구는 온난화로 인해 고통 받고 있고, 사막화로 점점 더워지고 지구 전체가 물이 부족한 상태가 되고 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아무 조건도 없이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 값없이(거저)라는 조건으로 이상적인 생태환경이 이뤄질 것을 말하고 있다. 오늘의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유토피아의 땅임을 보여준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요한 계시록 21:6)

새 예루살렘에 흐르는 생명수의 강, 그리고 생명나무는 민족들을 치료하는 열매가 된다는 비전을 보여준다. 현 시대를 지배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소수 경제선진 국가들의 막몬적 경향과 생태 파괴 현상은 망하지만 인간의 권리와 아름다운 생태환경을 보전하려는 새 예루살렘, 생명수 강이 흐르는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새로운 법과 새로운 질서의 세상을 도래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는 바로 녹색 경제, 녹색 성장, 자연 보호의 생태적 세계를 지향하는 나라일 것이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렸습니다. 강

양쪽에는 열두 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 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요한계시록 22: 1-2)

생태신학의 본문으로서 신약성경의 로마서 8:18-23절은 피조물이 섞어짐의 종노릇 한데서 해방되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당하는 것을 알게되었고,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세계가 될 것을 말하고 있다. 이는 오늘의 환경을 잘 지적하고 있는 본문이다. 사도행전 17:24-29절과 에베소서 4:6절은 만유의 주재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 골로새서 1:15-20에서는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세전에 계신 선재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며, 우주적 그리스도, 창조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를 말한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主宰)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사도행전 17:24-29절)

그리스도 예수는 오늘날의 생태적 위기, 즉 지구의 온난화, 이상기후, 천재지변의 환난 상황에서 천지의 주재이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신음하며 탄식하고 계신 분임을 알게 되며, 결국 주의 몸인 이 땅이 구속받게 될 것을 알게 한다.

V. 나가는 말

지구가 이제는 종착역에 다다르고 있다. 지구의 생태적 환경이 종말적 상황을 맞아 어떻게 다시 좋은 환경을 찾을 수 있는가 라는 과제 앞에 이제 기독교인이 추구하는 영성은 생태적 영성이어야 하며, 이 시점에서 예수는 생태적 예수로서 우리 앞에 다가오고 계시다. 지구의 온도가 점점 1도씩 올라가면서 벙골만이 잠기고 급기야 빙하가 모두 녹게 되는 결과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생기는 현상들은 놀라울 정도로 인류 생존의 큰 위기 상황이 초래하고 있고 지구의 생태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창조신앙과 생태 영성이 필요하고 생태신학이 시급하고도 중요한 요소임이 자명해졌다.

우리는 구약의 창조질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질서 보존, 신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동물과 공존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며 토라에 순종해야 함을 알게 되었다. 노아의 방주는 오늘날 생태적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지구 방주가 되어야 하고, 녹색방주 지구로서 거대한 생명신학의 틀 안에서 각 나라와 정부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임을 주지하게 된다. 이제 교회가 나서서 국민을 계도하고 교육해야 할 때이다. 지구의 시계가 이미 밤 10시에 오지 않았는가. 신약의 창조질서는 하늘의 징조와 시대의 징조 비유를 통해 지구 온난화 현상과 이상기후 현상을 파악하고, 생태적 위기와 온난화의 주범인 ‘제국’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을 녹색 국가, 녹색 경제, 녹색 성장, 녹색의 세계를 만들어야 함을 연구했다. 결국 만유의 주재인 그리스도, 우주의 그리스도를 통해 피조

물의 신음과 탄식의 상황에서 그들을 구원해야 할 과제를 찾게 되었다.

결국 생태적 예수에게서 지구 구원의 길이 있음을 제시하고, 이 나침반 예수를 통해 지구 구원의 길을 알게 된다. 이제 이것은 이웃 사랑의 범위가 모든 피조물에까지 해당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태적 영성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기독교인들은 무장하여 자연 보호와 생태계 복원, 자원고갈의 위기 극복, 한국 교회를 통한 생태구원 프로젝트를 마련하기 등 지구를 구원하기 위한 자구책을 찾고, 지구 공동체의 연합활동과 합동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임을 제시해야 한다.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태적 의식을 고취하고 실천하는 일이 필요하며 생태적 예수를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경재, “기후붕괴와 신학적 응답: 지난 25년간 한국신학계의 자연·생태신학 탐구의 지형도와 오늘의 과제”, <기후붕괴와 신학적 응답: 2009년 생태신학 세미나>, 한국교회환경연구소, 이화여대 탈경제인문학연구단.
- 김주용, “녹색경제의 삶” 『새 하늘과 새 땅』, 서울: 한국교회환경연구소, 2009.
- 성서와 함께 편집부, 『보시니 참 좋았다』, 서울: 성서와 함께, 2000.
- 손은하, “오늘의 희망메시지: 프란츠 알트의 생태적 경제기적, 생태주의자 예수”, 『새하늘과 새땅』, 한국교회 환경연구소, 16호, 2009년.
- 레네 파달라, 홍인식역, 『통전적 선교』, 서울: 나눔사, 1994.
- 우택주, “기후붕괴와 성서신학적 응답 1”, <기후붕괴와 신학적 응답: 2009년 생태신학 세미나>, 한국교회 환경연구소, 이화여대 탈경제인문학연구단.
- 유재원, 『창세기강해: 제 1장』, 서울: 대영사, 1987.
- 이정배, 『신학의 생명화, 신학의 영성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